

# 인 터 서 브 프렌즈



특집 :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기대  
- 공갈렘, 조샘 대표 인터뷰

인터서브 필드 :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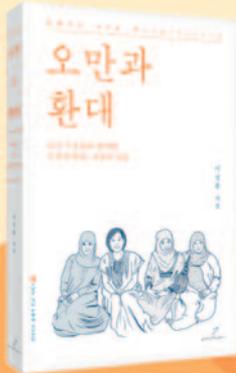
믿음의 씨앗과 평화의 꽃 \_ 하산 선교

5번째 총체적 선교 시리즈

# 오만과 환대

오만 무슬림과 함께한 우정과 환대, 사림의 날들

저자: 이선용 선교사



“ 우리는 오만에 살러 갔고,  
그들의 이웃이요 친구가 되려는  
꿈을 안고 정착을 시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찾아오고  
초대하고 필요를 채워 주며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우리가 아니라  
오만 사람들이었다.

오만! 헌법보다 이슬람법이 위에 있는 보수적인 정통 이슬람 국가, 뜨겁다 못해 뜨거운 햇볕이 사계절 살아 있는 모래의 나라. 그 오만의 작은 마을에 한 그리스도인 가족이 정착한다면?

오만 사람들의 가족 관계와 풍성한 환대, 그들의 문화에 깊숙이 이끌려 들어간 저자의 눈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거나 피상적으로 알았던 무슬림들의 인식과 생활방식, 생생한 일상의 면면을 보게 됩니다.



인터서브 본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총체적 선교 시리즈를 보내드립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왼쪽 QR코드 스캔하면 인터서브의 후원링크로 이동합니다.

• 후원문의: [finance3isk@gmail.com](mailto:finance3isk@gmail.com)

# contents

## 특집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기대

- 04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며 \_ 백은찬 이사장
- 05 공갈렙, 조샘 대표 인터뷰
- 10 부대표 인사 : 하손열, 송기태, 서눔바 선교사

##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14 생태기도 \_ 최현기 펠로우
- 15 미션얼 패밀리 : 신입 선교사 소개

##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8 인터서브 필드 : 인도네시아 \_ 이샘 선교사
- 22 인터서브 스토리 : 믿음과 씨앗, 평화의 꽃 \_ 하산 선교사
- 26 미션얼 북 : 오만과 환대 서평 \_ 오양택 프렌즈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플러 심을 제거해주세요.

#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며

백은찬 이사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터서브코리아의 이사  
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지 어느덧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받은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각자  
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여  
러 훌륭한 분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 쓰  
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섬김, 겸손 그리고 사랑  
의 마음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 훌  
륭한 분들을 만나 뵈게 되어 행복하고 기뻐습  
니다.

저는 몇 년 전, 부이사장으로 섬기던 것을 끝  
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던 바 있습  
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권유해 주시고, 격  
려해 주신 바, 작년 말부터는 다시 이사장으로  
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해 낼 수 있을지  
어려운 마음도 있었습지만, 하나님께 순종하  
는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였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볼 때 조샘 대표와 김민철 전 이사장님 및 이사  
들이 인터서브코리아의 구조를 바꾸고 운영체  
계를 개선한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라고 생각합니다. 인터서브 공동체는 최근 몇  
년간 큰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냈습니다. 본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사회 구조  
를 균형있게 바로잡았으며, 펠로우 제도를 도  
입하여 보다 실제적인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전 대  
표단과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터서브코리아는 이전보다 훨씬 효율  
적이고 활동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부족한 것들을 보  
완하여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갈렙 대표님과 저를 비롯한 이사  
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많은 선교사  
와 펠로우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나날이 발전  
해 가는 인터서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  
겠습니다. 대표님과 행정 직원 분들 또한 즐겁  
게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터서브코리아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기  
를 기대합니다.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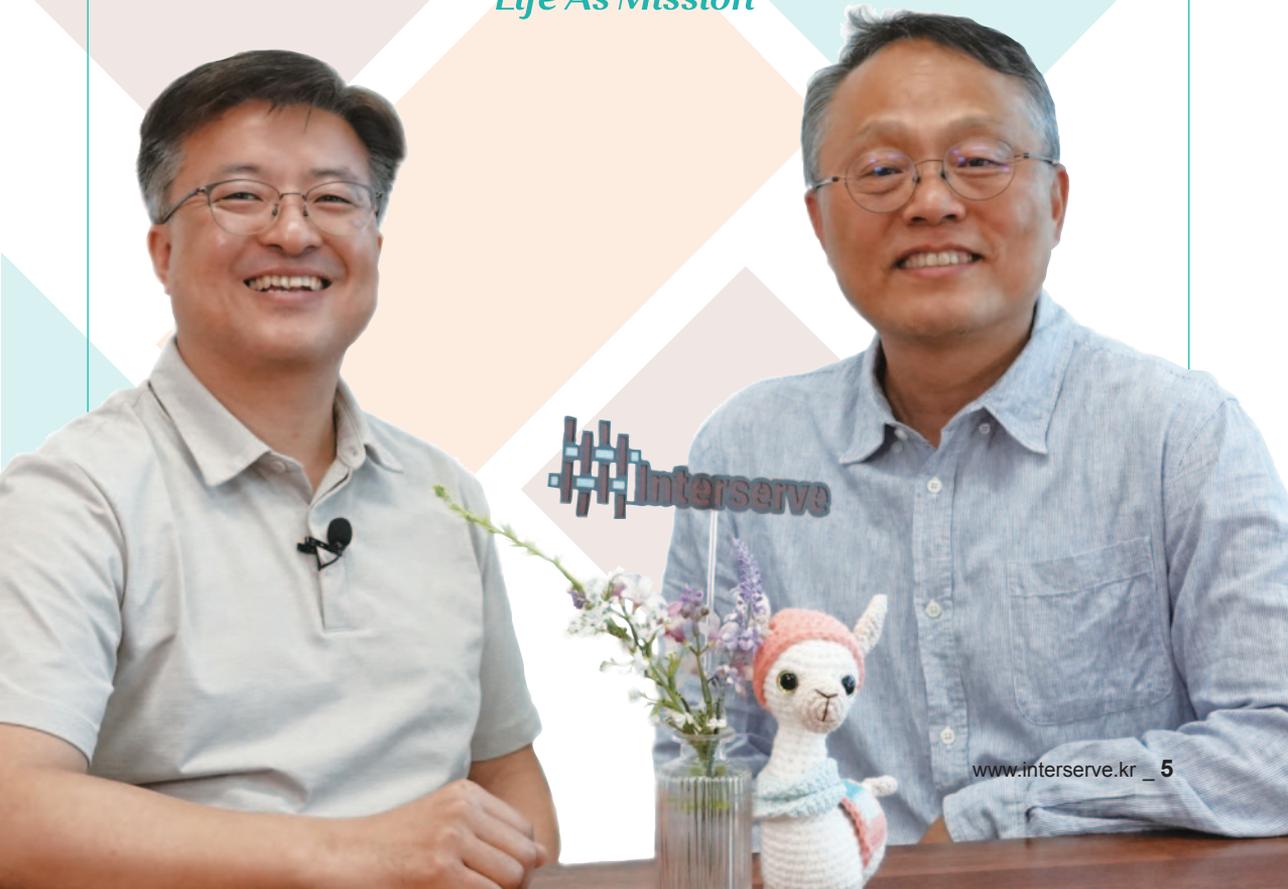
대표 인터뷰

# 공갈렘 신임 대표 & 조샘 전임 대표

인터서브코리아는 2024년 7월부터 리더십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8년 동안 수고하신 **조샘** 대표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새로운 기대와 기쁨으로 **공갈렘** 선교사님을 대표로 맞이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인터서브코리아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배우며  
이제는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인터서브코리아를 이끌어갈  
조샘과 공갈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





안녕하세요. 조샘대표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인터서브 대표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터서브에게 주신 총체적 선교 DNA를 잘 지켜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변혁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작년 9월에 공갈렙 선생님이 대표로 선임된 이후에 지금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6개월의 긴 인수인계 기간 두 분 어떠셨나요?

**공** 저는 차기 대표로 미리 뽑힌 거지 대표로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이나 권한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난 몇 개월을 지나 보니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조샘 대표님과 오버랩하면서 업무를 같이 하기도 하고 제가 따로 하기도 하고, 조샘이 계속해야 될 부분을 계속 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대표 업무를 자연스럽게 많이 익힌 것 같아요.

**조** 보통은 긴 인수인계를 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재밌었어요 그만큼 공 선생님이 잘 따라 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많은 것이 전수됐고, 또 공 선생님이 새롭게 가져올 공헌들과 장점들을 제가 기쁘게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신뢰도 생기고 굉장히 좋았어요.

인수인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공** 8가지 정도의 주제를 정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오찬 모임은 3월부터 했으니까, 두달 정도 되었나? 4월이 인터서브의 회기 연도의 시작인데 실제로 4월부터는 제가 뒤로 물러서고 공 선생님 체제로 들어간 거죠. 그런 변화 과정도 굉장히 좋았고요.

주제는 미리 의논해서 정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재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어떻게 쉬어야 해? 선교적 숲, 펠로우로 거버넌스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것을 밥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시간 반씩 만났어요. 한 일곱 번 정도 모였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조** 정기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시간 반 정도 밖에 안 됐지만 사무실에 같이 출근하니까 수시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또 사안이 생기면 그것으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저는 어떻게 앞으로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짧게 만났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계속 이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인수인계하시면서 당황하거나 놀라웠던 점 같은 것이 있으세요?

**공** 대표가 되면 고급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죠.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있지만 부담되는 정보도 있어요. 물론 예상했지만, ‘대표가 되면 이런 것을 다 감내해야 하는구나, 실제로 이런 부담이 있겠구나!’ 하는 약간의 당황? 그거 외에는 글썽요? 아무래도 이양 기간이 길어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서 크게 당황할 일은 없었어요.

**조** 공 대표를 뽑으면서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선교사들과 펠로우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공 선생님이 걸어왔던 길, 가족 상황을 통해서 공 선생님이 영민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서 지금 필요한 리더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샘이 8년 동안 대표로 사역하면서 집중하셨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조**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칠 년 전에 사무실 공간 변화에 관해 썼던 글이 뜨더라고요. 사실 본부에 들어올 때 마음의 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의 선교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어떻게 하면 필드에서 일하는 선교사들과 새롭게 들어오는 펠로우들이 본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일하는 것을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그렇게 의견을 받고 돌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까? 이 두 가지 장기적인 목표가 처음부터 제 마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고, 스태프들도 대부분 신입이고, 본부 선교사도 한 분



안녕하세요. 공갈렘입니다.

조샘 대표님을 이어서 새롭게 인터서브코리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본질에 충실하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만 남고 다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팀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첫 삼 년은 팀을 구축했어요. 함께 어떤 목적으로 향할지 토론을 하다가 하순열 선생님이 Life As Mission을 처음 이야기했어요. 또 2017년 상반기에 시니어 선교사들 들어와서 2박 3일인가를 같이 보냈어요. 목적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를 본부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거버넌스가 원활하지 않아서 약간 빠르게 진행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다음 본부 재정이 적자를 회복하고, 스텝 숫자를 줄이면서 각 스텝들의 월급을 올려서 장기로 있을 수 있게 했고, 본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도 생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재정 문제에 손을 댔고요. 세 번째가 공간 배치였어요. 일 년을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삼 년쯤 되니까 ‘아, 이 사람들은 내 팀이다. 우리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한 장기적인 것들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필드 선교사였고, 본부에서도 꽤 오랜 기간 계셨잖아요.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고 싶으세요?

**공** 저는 선교지에서 이십 대 중반부터 사십 대 후반까지 꽤 오랜 시간을 보내서 필드에 대한 애착이 매우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부 대표로 추천이 됐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현장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행정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필드의 경험이 오히려 행정과 필드가 괴리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몇 국가를 방문해서 필드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 만남이 현장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인도로 다시 돌아갔으면 아무래도 저의 필드는 인도 안에 고착되었겠죠. 현장 중심의 사고로 아시아와 아랍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현장’으로 생각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현장성이 확대되지 않나? 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그런 현장성과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본질에 충실한 ‘아드 폰테스’**에 애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 1) Ad fontes (라틴어, 근원으로 돌아가자)

나의 대표 사역은 다. 라고 정리한다면 네모 안에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어요?

**조** 도형으로 표현하면 **팔각형**이다. 이것저것 많이 벌였어요. 이제 뒷수습을 하는 사람들은 벌어진 일들을 강화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이런 건 좀 미안해요. 본부 스텝들과 선교사들이 일을 잘 나눠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공** **성숙**이다. 성숙을 향해서 갈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서브 공동체에 인사를 나눠주세요.

**공** 인터서브 선교사, 펠로우, 프렌즈,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여러 후원자분들과 기도하시는 모든 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인터서브 만에 어떤 특정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동역의 길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이 길이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계속 소통하고 만나고,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계속 나누어가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인터서브 식구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8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스텝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문식 이사장님, 김민철 이사장님, 또 백은찬 이사장님 3분의 이사장님을 모셨는데 참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사님들과 더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세상에는 각자의 색깔을 가진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요.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인터서브처럼 총체적인 변혁을 증거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타문화 선교단체 중에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DNA를 잘 지켜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또 세상 가운데 변혁이 있기를 기도하고, 추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진솔한 인터뷰는 인터서브코리아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interservekorea>)

부대표 인사



조샘 대표와 함께 2016년부터  
8년간 부대표로 인터서브를 섬겨오셨던  
**송기태** (교회 관계), **서눔바** (멤버케어),  
**하순열** (다문화) 선교사님도  
7월부터 부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인터서브 공동체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섬겨 오셨던  
세 분 부대표님의 빈자리는 우리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 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인터서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써 내려갈 세 분의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 2020년 송기태, 서눔바,  
하순열 부대표와 조샘 대표



부대표님들의 마지막 인사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 »» 가치 중심의 공동체로 성장한 인터서브

하손열 부대표

한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리더십 팀 구성 요소를 빼놓을 수는 없다. 조샘 대표의 임기 시작 후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다수의 부대표 체제가 처음으로 인터서브코리아 행정 시스템 안에 생겼다. 8년간 끝까지 완주하며 함께 팀을 이루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교회와 세계 선교의 현장은 빠르게 변하며 다양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인터서브는 여전히 전통적인 선교 방식과 운영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조직이나 팀이 이전의 흐름을 깨고 개념과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샘 대표는 이를 위해 리더십 팀의 구조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선교적 관점과 방향에 변화를 주는데 노력했다. ‘사역ministry’ 중심의 ‘what to do’ 시각에서 ‘가치value; ‘why to do’에 집중하는 것은 처음에는 생소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가치(Value)–사람(People)–사역(Ministry)’라는 ‘VPM’개념을 이해하면서, 우리 조직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 안에 합의된 ‘가치(what for)’를 위해 모였음을 공감하게 되었다. 또한 가치를 따라가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터서브코리아에서 2011년부터 부대표직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13년간 섬겼다. 마지막 4년은 국내 다문화 사역에 파견되어 다문화 사역 자리매김에 주력하였다. V-P-M’ 변화의 과정에서 배운 대로 이주민을 대상화하거나 사역의 한 도구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보였고 그 속에서 가치를 함께 발견하며 이주민들의 친구로, 이웃으로 살아감의 중요성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임기를 마친 후에도 이러한 선교적 관점에서의 사역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 지 때가 되고 기쁨이 넘친다. 8년 전 신임 대표에 의해 진행되었던 선교적 관점과 새로운 구조 변화에 함께했던 리더십 팀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 » 섬김의 리더십

송기태 부대표

인터서브 본부 사역 14년 중에서 지난 8년, 거의 반 정도를 부대표로 섬겼다. 8년 전에 조샘 대표로부터 부대표의 역할을 제안받았을 때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한 단체의 리더십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담과 책임이 많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나는 부대표이면서 교회 관계 담당자의 역할을 했다. 교회 관계의 업무가 대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부대표직임이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내가 외부적으로 인터서브를 대표하는 리더십 팀의 일원으로 소개되는 일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긍정성이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리더십 팀의 일원으로서 15명의 본부 식구를 향한 소망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본부 식구들이 모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인터서브의 비전인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의 실천이 본부 사무실 안에서 먼저 구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를 위하여 나의 우선순위는 항상 본부 식구들이 나에게 부탁하는 일을 성실히 돕는 일이었다.

부대표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직함에서 보여주듯이 대표를 돕는 일이다. 나는 평소에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섬기는 것(to serve)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신념을 부대표 직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개인적으로는 대표들의 직임을 보면서 매우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생각하곤 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대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170여 년의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인터서브의 멤버로 일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또한 이런 단체의 리더십 팀의 일원으로 섬기는 일은 더욱더 감사한 일이다. 내가 모든 선교사들 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직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고, 이 직책을 맡겨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은혜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여정을 함께 해 준 본부 식구들과 선교사들, 이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선교적 삶을 찾아 떠날 여행을 준비하며 서눔바 부대표

인터서브 선교사로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18년을 살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되어 고국에 들어와 전환 기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은 계속 선교지를 향했다. 주님께서 새롭게 일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한편, 선교사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마음을 품기도 했다.

간절한 기다림 끝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곳은 인터서브 본부였다. 행정 사역 초보자가 8년이 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본부에서 함께 일했던 모든 분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었다. 때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내가 살았던 곳, 함께 했던 현지 친구들, 그곳의 삶과 감사함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몹시도 그리웠다.

본부에서 일하면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 갈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선교사님들이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나라와 사역지를 온몸과 마음으로 만났다. 다양한 지원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부모님들과 친밀감이 생겨나고, 본부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현장에 있었다. 선교에 관해 갖고 있었던 좁은 편견들과 무지함이 벗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친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배우며 경험했다.

본부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인터서브를 잘 알지 못했다. 인터서브의 비전과 목적, 핵심 가치를 배우며 인터서브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아끼게 되었다. 멤버케어의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내 역량의 한계를 수없이 인정했지만, 선교지에서 누렸던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많았다. 선교지에서의 사역만큼이나 본부 안에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멤버케어 사역의 필요와 소중함을 느끼며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일터임을 확인하며 일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인터서브코리아는 많은 성장을 했다. 성장의 현장 속에 있었던 나도 조금씩 자라났다. 나에게 본부라는 새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행정 경험 없는 나를 부대표라는 자리에 겁도 없이 불러주고 멤버케어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고 조언과 격려해 준 조셉 대표에게, 두 분 부대표님과 매니저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는 인터서브코리아에서 배운 대로, “Life As Mission”의 선교적 삶을 찾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자 한다. #

# 생태 기도

INCA팀, 최현기 펠로우

## 天 하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원히 쇠하지 않는 당신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손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사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조세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의 사랑의 손길로 회복된 피조물은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 地 땅

주님, 현재 대한민국은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절제 없이 생산하고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상하고 아파하는 이 땅을 고쳐주소서.  
대한민국은, 이 땅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쓰레기 전량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경제 구조로 바뀌 가게 하소서.

먼저 소비문화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 있는 시민들을 통해  
정부와 기업들이 각성하여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지으신 이 땅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 人 사람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을 좇아 쉽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주의 마음으로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편리와 만족을 위하여 착취하고 남용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돈 우상과 탐욕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주께 돌아와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이, 주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시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생하는 참된 살림을 경험하는 곳으로 돌이키는 데 쓰임 받게 하소서. 卍

☐ 미션얼 Family

## 주경배, 주경애 선교사



Missional Family

저희는 20대에 주님을 만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과 교회 사역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교회의 파송을 받아 베트남 북부의 한 대학에서 전기공학과 강사와 한국어 선생님이로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청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선교사로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축복임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5년의 베트남 사역을 마친 후, 결혼 초창기부터 저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땅, 중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GMTC 경력 선교사 훈련을 받던 중 인터서브를 알게 하였고, 인터서브와 함께 중동의 요르단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고 계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인터서브를 알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서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중동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

▶ 기도제목

- 요르단 파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기 후원금이 채워져서 목표로 하는 시기에 파송 받게 하소서.
- “인카운터 이슬람” 등 현재 참여 중인 훈련을 통해 아랍권 사역에 온전히 준비되게 하소서.
- 하나님께 오병이여를 올려드리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소서.

**윤은채** 선교사*Missional Family*

저는 10여 년간 안과에서 PA(임상전담)간호사로 일했고 지금은 연구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코너스톤에서 MTC 훈련을 받고 차근차근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인터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서브가 선교사를 보내는 일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동참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션 일을 살아내도록 돕는 다양한 사역을 보며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간을 지나가며, 저는 무슬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눈물을 알게 되어 중동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서브에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

## ▶ 기도제목

-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가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소서.
- 선교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준비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 준비되게 하소서.

## 김령 선교사



Missional Family

저는 1990년부터 서울 근교에서 생명 운동으로 유기농을 해오신 부모님의 경기도 양평의 농장에서 새롭게 생명 운동을 시작한 김령입니다. 어릴 적 선교사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타문화권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 영어, 신학 훈련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양평 청소년들에게 있었고 지난 17년간 영어 학원을 하며 그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이후 더 나이 들기 전 유기농의 명맥을 잇고 잠시라도 부모님을 돕기 위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 조샘 대표님을 만나 연결된 많은 기회를 통해 창조세계 보존 이슈 확산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국제기독교생태운동 단체인 아로샤 캐나다를 방문하여 2주간 머물며 한국에도 생태 운동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민했고, 인터서브에 생태 선교사로 지원하라는 권유를 받아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등 돌린 인간의 죄로 황폐해진 땅과 오염된 먹거리를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일을 매개로 창조 세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선교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卍

### ▶ 기도제목

- 건강과 체력을 주셔서 활동에 지장 받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감지 하도록 하소서.
- 농장과 집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 포스트 로잔 준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누리며 감사하며 일하게 도와주소서.
- 선교사 허입과 지역 사회와 연결 등으로 갑자기 늘어난 많은 모임과 일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 인도네시아

이샘 선교사

**인도네시아**는 15세기에 이슬람교가 전파되어 수마트라 · 자바 · 칼리만탄 등 많은 지역에 여러 이슬람 왕국이 성립됐다. 1602년부터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한 끝에 1949년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50년 연방을 해산하고, 현재 중앙집권의 의원내각제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세웠다. 1965년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를 진압하며 50만~100만에 이르는 대숙청을 감행한 육군장성 수하르토는 수카르노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여 32년에 걸친 독재정치를 했다.

2014년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어 조코 위도도가 서민 출신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2019년 재선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분리주의 세력인 '자유 파푸아 운동'이 파푸아에서 무장으로 계속 활동 중이다.

2024년 2월 14일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당선이 확정된 프라보워는 10월 20일부터 5년의 임기로 인도네시아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의 과거는 부정과 부패의 이미지라 기독교인들과 사업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조코위 대통령은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이었지만 아들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프라보워와 손을 잡고 헌법 해석을 입맛에 맞게 바꾸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던 중 일어난 일이라 의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한 상실감을 느끼며 염려하고 있다.

경제는 광물자원, 천연가스, 산림, 농업과 방직 위주의 제조업이며, 서비스 산업도 크게 성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이웃 국가들을 제치고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G20 회원국이었다. 빈곤과 실업, 불충분한 인프라, 부패, 복잡한 규제 환경, 그리고 지역 간의 불평등한 자원 분배의 문제를 갖고 있다. (본문 발췌: 기도365)

## 1. 인도네시아의 평화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역사 속에서 종족과 지역 간 갈등 등은 자연스럽게 종교 간 갈등으로 표출됐으며 그때마다 대규모 소요 사태와 함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다양성 속의 하나 됨을 목표로 만들어진 건국이념 Pancasila를 바탕으로 한 인도네시아 헌법은 종교와 종족 간 상호 존중을 보장하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갈등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 서로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갈등하게 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하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또한 살아계시고 홀로 하 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십자가의 길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소서.

## 2. 이슬람 정권 정치와 문화의 개혁을 위하여

정치의 중심이 이슬람권으로 치우쳐 있어 이로 인한 종교 편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치인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이다. 그러나 문화로 스며드는 인식의 변화를 소망해 본다.

>> 인도네시아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 속에 종종 심겨진 기독교 정신과 믿음을 가진 한국 연예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 3. 인도네시아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회복을 위하여

개신교는 인구의 약 9%가량이지만, 상당수는 명목상의 신자들이다. 이런 명목적인 신앙 때문에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신자의 교회 출석률도 매우 저조하다. 매주 교회에 나가는 신자라도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고 부적을 사용한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 분열, 토착적 신비술 성행 등의 문제가 팽배하다. 또한, 새신자를 가르칠 교사나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매우 적기에 제대로 된 양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교회와 교단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



나로 모아 주소서. 2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나가는 은혜를 주소서.

#### 4. 아동 착취의 종식을 위하여

매년 3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대부분 담배, 팜오일 농장에서 위협에 노출된 채 일하는데 특히 돈을 벌러 거리로 나온 아이들이 너무 쉽게 성매매에 노출되어있다.

>>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악한 사회 가운데 아이들을 도울 사람들과 단체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

# Indonesia



☐ 인터서브 스토리

## 믿음의 씨앗, 평화의 꽃



하산 선교사

“하산, 너 교회 찾았나?” 답을 못하는 나에게 이브라힘이 말했다. “네가 다닐 만한 교회를 찾았어. 가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찾아볼게.” 이브라힘은 내가 교회를 찾지 못한다는 생각에 교회를 알아보았다. 그는 신실한 무슬림이고 작년에 이슬람 성지 순례를 다녀온 하지<sup>ᄇ</sup>였기에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하산,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라시드는 손주를 위한 행사를 하기로 하며 우리 부부를 초대했다. 얼마 전 그는 두 번째 손주를 보았다. 잔치 날, 이맘<sup>2)</sup>이 오고 남자들은 모두 방안에서 이슬람식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내가 들어가자 모두 좋아한다. 그들은 내가 기독교인임을 알고 있다. 이맘은 한때 새벽마다 나에게 코란 구절을 보내며 전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기독교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친구로 대하였다. 남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내는 참석한 여성들과 어울렸다. 아내가 그의 아내에게 돌잔치도 아닌데 무슨 모임이냐고 묻자 친구의 아내는 손주가 계속 병치레를 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참석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지금 그의 손주는 잘 자라고 있다.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였던 라시드는 지역 고위 인사들과 매우 가까워서, 내가 어려울 때 여러모로 도움을 주곤 한다. 그의 아내는 빼어난 요리 솜씨로 우리 집의 여러 행사에 도움을 주고 과거 무슬림 여성으로 겪은 여러 아픔에 대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다.

#### ※ 친구와의 이별

어느 날 한낮의 무더위가 가라앉을 무렵 연락이 왔다. 병상에 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다. 그는 나와 같은 나이에 생일도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1년 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시신 앞에서 문상하지 못하게 했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가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그의 영구차를 맞이했다. 장례와 그 후 몇 번의 추모 행사에 나는 수백 명의 무슬림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다. 이제 이 도시의 중년, 노년층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기독교인이자 외국인인 나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 ※ 사역의 시작

이 도시에 오기 전 10여 년간 S시에서 B족 사역을 했다. 3,400만 명의 인구 중 기독교인이 겨우 2만 명뿐이었다. S시에 살던 대부분의 서양 친구들과 우리 가족은 B종족 무슬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쳤다. 서양 친구들과 현지 지도자들에게서 무슬림에 대해 더 깊이 배운 나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무슬림들과

- 
- 1) 성지순례를 마친 무슬림에게 붙이는 존칭
  - 2)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친구가 되어 살았다. 서툴지만 그들의 종족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마을과 학교에서 그들과 어울리며 함께 먹고 마시고 소규모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지었다. 다행히 이 두 가지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심자가 생겨나고 마을에 잘 정착 할 수 있었다.

### ※ 새로운 사역지

S시에서 제법 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동역자가 이제 자기가 떠날 때라며 대책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함께 일하던 우리 모두는 이제 떠날 때란 것을 짐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결국 함께 일하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모두 떠났다. 대부분 여전히 다양한 곳에서 무슬림들이나 선교사들을 섬기며 일하고 있다. 나 역시 다른 섬으로 옮겨갔다. 가끔 함께하던 친구들이 그립다. 이제 S시에서 함께 사역하던 현지인 동료들이 지도자가 되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나는 그들이 보고 싶지만 출장길에도 의도적으로 그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

### ※ 현지 생활의 도전

살고 있는 도시의 친구들은 내가 무슬림이 되면 더 좋겠다고 말한다. 금식 기간에 그들 앞에서 물도 마시지 않는 나에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준다. 자기들은 기쁨으로 금식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위한 배려이다. 가끔 친구들은 “너는 말을 할 줄 알면서 들을 줄은 모른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그건 내가 쓰는 표준어와 그들의 종족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 사역 이전 삶을 묵상하게 된다. 이 도시에 10년 가까이 살았지만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친구들에게 늘 묻고 도움 받아야 그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 그때까지 그들에게서 받는 도움과 배움은 계속될 것이다.

### ※ 마을에서의 삶

도시에서 두 시간 남짓 해적들이 타고 다닐 만한 작은 스피드 보트를 타고 마을에 들어간다. 만 명이 넘는 주민들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 이주해 온 기독교인들끼리 동네 안에서 분리되어 살고 있다. 그들은 외부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무슬림들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 내가 도착하면 마을 젊



은이들이 노골적으로 나를 경계한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교회까지 오토바이를 태워 달라 부탁한다. 저녁에는 촌장과 무슬림 지도자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차도 마시며 어울린다. 어느 날 무슬림 지도자와 촌장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해온다. 목사에게 그건 당연한 결과라며 장벽을 허물라고 계속 조언한다. 이제 서로 중요한 행사에 왕래하고, 종교를 떠나 마을 공동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있다.

#### ※ 도시에 있는 현지교회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도시 안의 교회에 나갔다. 첫날 목사님은 선교 사냐고 묻는다. 상황을 설명하니 단번에 알아듣고 도움을 준다. S시의 친구 목사가 이 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기에 나는 그의 이름을 지역 리더급 목회자들에게 적절히 사용한다. 출석 교회 목사의 도움으로 도시 안의 몇몇 목사들과 책도 읽고 교제를 한다. 나는 주로 자리를 만들고 현지 목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도시에 있는 현지 교회의 친구들은 나에게 무슬림들을 멀리하고 자기들만 섬기라는 말은 자주 한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이 말은 기독교, 무슬림, 타 종교 친구들 모두에게 한다.

#### ※ 남은 시간

이곳에 얼마나 오랜 기간 살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종교,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어울릴 것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일하며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



## MISSION BOOK



## 오만과 환대

이선용 지음. 앵커 발행, 2024년.

## 나의 울타리 밖 이웃을 만나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보통의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무슬림이란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구레나룻을 기른 극단적 원리주의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화의 오류는 우리의 흔한 실수이겠지만, 일상에서 무슬림을 쉽게 접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신화를 극복하는 것은 꽤나 힘겨운 일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오만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를 한편의 수필처럼 담백하게 써 내려간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 눈에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의 안경을 벗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책 후반부에서 저자 가족들의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하이팜의 에피소드는 어린시절 한국 시골마을에도 한 두명 꼭 있던 마당발 이웃 아저씨나 삼촌, 큰 형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연안 선교에서 내륙선교로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Everywhere to Everywhere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급변해 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담벼락을 허물고 울타리 밖의 이웃들을 환대하기 원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환대는 성경에 나온 개념이며, 오늘 날에서도 여전히 성경적이다.” 책 말미에 나오는 저자의 고백은 성경의 진리가 시대와 공동체의 거대 담론에서 개인적 경험의 영역으로 밀려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수의 근원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 오양택 프렌즈

20대 초반 회심을 경험하고 네비게이토에서 성경을 배운 뒤 30대 중반 싱가포르 이주하여 운송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한 나의 이웃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인터서브의 프렌즈입니다.

#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52호 2024 Summer

##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시아와 아랍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중 된 섬김

인터서브 기간지 2024년 여름호 통권 152호

발행인 조섬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4. 6. 25.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mailto: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http://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https://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1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mailto: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http://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https://facebook.com/interservekorea)